

오월 산 역사, 그들은 어디로?

1980년 5월27일 오전 5시10분,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을 비롯해 광주 시내 전역을 장악했다. 진압작전 후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전남도청으로 연행하고 있다.

1980년 5월, 그날 그자리

28년만의 약속 사진기자 이창성의 미공개 5·18 사진

5·18 사진집 낸 이창성 전 중앙일보 사진기자
“시민군 사진의 대부분은 그들의 이 세상 마지막 모습”

“28년전 5월, 광주항쟁 시민군 지휘부와 약속했습니다. 항쟁의 역사를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해 역사의 증언으로서 후세에 남기겠다고. 이제 그 약속을 지킵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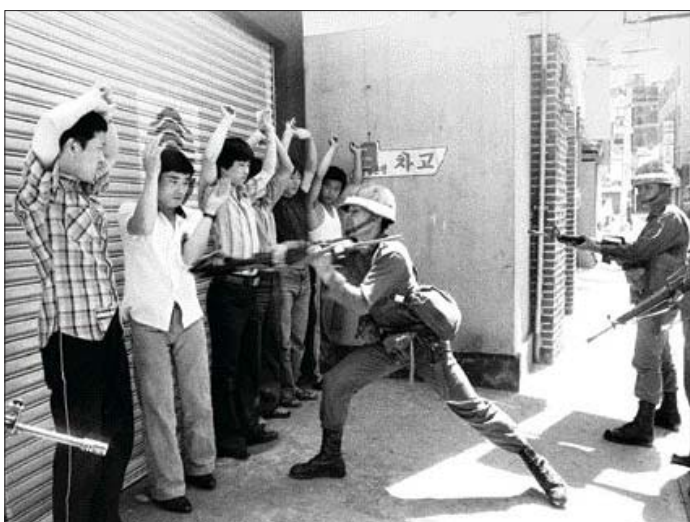
5·18 광주항쟁 당시 중앙일보 사진기자로 광주에서 취재활동을 했던 이창성 전 중앙일보 부국장(65·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)이 항쟁 당시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모아 사진집 ‘28년만의 약속-5·18 광주항쟁과 특종의 순간들’을 펴냈다. 이 사진집에는 1980년 5월18~27일 광주의 모습을 담은 26장의 컬러사진과 100여점의 흑백사진이 들어있다. 시민군으로부터 호위병력과 차량까지 지원받아 참담했던 현장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지만 대부분 당국의 검열 때문에 신문에 실지 못한 채 미공개 파일로 보유하고 있던 사진들이었다. 이 전 부국장은 “그래서 늦었지만 28년 전 시민군 지휘부에 약속한대로 역사의 증언인 당시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으로 공개하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 그는 “이 사진집에 수록된 시민군 사진의 대부분은 그들의 이 세상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다”며 “매년 5월이면 그들의 그 형형한 눈빛을 잊을 수 없고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에 대한 채무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”고 5·18 광주를 슬회했다.

사진집은 광주항쟁의 전개 과정에 따라 편성됐고, 사진과 함께 기자의 당시 취재일지와 항쟁일지를 첨부했다. 사진집 2부는 대연각호텔 화재 등 그가 1967~1979년 사이에 찍은 사진들로 구성됐다. 눈빛출판사, 168쪽, 3만 5천원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탱크로 밀고

진압작전 직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일대. 계엄군이 시민 2명을 끌어 앉혀 감시하는 가운데 탱크가 도심을 지나고 있다



구타 계엄군에게 체포된 청년들이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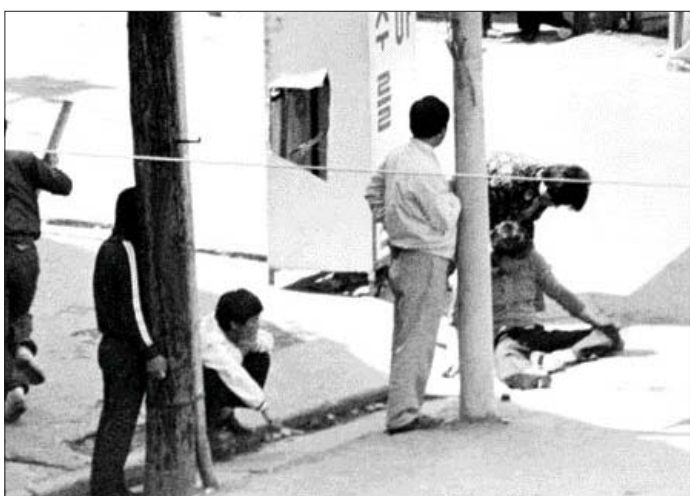
대동세상... 하나된 광주시민

5월22일 금남로 5가. 시민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 시민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.



청소차에 실려

폭도의 누명을 쓴 시민군들은 그 시신마저도 청소차에 실려 운구되는 운명을 겪었다



총격 5월21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. 길가에 있던 한 시민이 총에 맞아 폭 쓰러졌지만 주위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.



나뒹구는 시신

5월27일 진압작전이 끝난 전남도청. 수 많은 시민군들의 시신이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다.